



## 동국대 RIS사업단 사업 종료·성과 보고 ‘인쇄산업 발전 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동국대학교 RIS사업단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호텔PJ에서 ‘인쇄산업 발전 방안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RIS사업단 2단계 사업진행 성과 보고와 오성상 신구대학교 교수의 기초 발제, 서동일 프린피아 상무이사, 윤광원 미래엔 상무이사,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의 패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 사업보고 이의수 동국대학교 RIS사업단 단장 “향후 5년 간 성과 활용 기간 통해 구축 인프라 활용”



토론회에서 이의수 동국대 RIS사업단장은 동국대학교 RIS사업단 사업의 진행 성과에 대해 직접 보고했다.

RIS사업단은 도심 클러스터 산업인 프린팅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조 고도화 및 매출증대를 위한 디지털 인쇄 환경 전환 및 해외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 제품개발 사업, 인력양성 사업, 마케팅 사업, 기업지원 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원기업 수 누계 295개사, 산학연 협력 사례 530여건(장비활용 55건, 교육연계 146건, 경영상담 22건, 기술상담 175건, 마켓연계 95건, 기술경영지도 25건, 공동연구 6건, 기술이전 6건), 국제인증취득 32개사, 고용 창출 305명, 인력양성 1322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토대로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5년간은 성과 활용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4억여 원의 수익금과 매년 정부에서 지원되는 5000만 원 등의 연구비를 통해 구축된 RIS사업단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인쇄산업의 매출증대와 수출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 기초발제 오성상 신구대학교 교수 “인증제도 활용·과당 경쟁 지양·업계 상생 필요”



기초발제를 한 오성상 교수는 인쇄산업의 현안으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으로 인한 인쇄기업 간의 과당 경쟁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인력의 부재 ▲인쇄산업을 보호하려는 자구책의 부재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문제의 원인으로는 ▲인쇄기업 간 동업

자 정신의 부재 ▲인쇄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의 부재 ▲기술력 기반이 아닌 가격 기반의 경쟁 체제 ▲낮은 인쇄회사 설립 장벽 ▲교육기관 및 교육시스템의 불안정화 등을 들었다.

때문에 인증제도 활용, 과당 경쟁 지양, 업계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활용, 교육시스템과 인력양성 강화, 인쇄시설의 환경문제와 친환경 이슈의 대응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발표 및 참석자 토론-----

서동일 프린피아 상무이사

**“친환경 인쇄 규제·인센티브 부재로 확대 어려워”**



서동일 프린피아 상무이사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인쇄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친환경 인쇄요소를 친환경 인쇄용지, 무용제 등 친환경 잉크, 무현상 판재 등의 인쇄재료 부문과 무알콜 또는 저알콜 인쇄, 무습수 인쇄, 에너지 저 사용 인쇄, 폐열을

이용한 윤전 인쇄,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적용한 인쇄기 구동 등의 인쇄기술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인쇄산업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으로 폐열 회수 장치, 인쇄기 구동장치 개선 등의 일부 기술은 많은 초기 비용이 필요하고, UV잉크, 무현상 판재 등은 원가 부담이 높으며, 기능인력과 기술력의 미비, 기계 개조 부담 등의 기술적용 어려움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와 그에 따른 강제성의 미비, 제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부재, 친환경 인쇄 실현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윤광원 미래엔 상무이사

**“업계 자정작용 통해 과잉설비 조정 필요”**



윤광원 미래엔 상무이사는 인쇄산업 현황 조사 결과 국내 인쇄산업이 포화된 상태라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과당경쟁은 인쇄물 수요자나 생산량에 비해 인쇄설비가 지나치게 과잉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규모의 경제가 되도록 업계 자정작용의 일환인 인수합병과 전문 인쇄업체 유도 등을 통해 인쇄업체 수는 물론 과잉설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인쇄업체들과 과당 경쟁은 물론 공기업과 과당 입찰에 따라 인쇄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됨으로써 품질 저하는 물론, 인쇄업이 기로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인쇄업계의 분야별 전문화 및 표준화가

정착되고 경영 단위가 될 때 인쇄업계 상생은 물론 타업종 산업 간에도 상생의 원칙을 세워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

**“신규 물량 창출이 과잉 해결 선결 조건”**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는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업계 내 과당 경쟁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진단을 내렸다.

우선 2011년 7월 11일 발표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인쇄를 국가 전략산업화를 목표로 5대 과제 및 17개 세부이행과제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즉, 친환경 인쇄기반 조성, 고품질 인쇄산업 육성, 인쇄 수출 경쟁력 강화, 인쇄문화가치 확산, 인쇄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등의 5대 과제에 따라 세부이행과제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쇄업계 과당 경쟁 등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인위적인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 인쇄물 창출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과 디자인을 강화하고 특허기술이 적용된 인쇄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인쇄업계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쇄연합회 등의 단체가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간 5000억원 규모 추정되는 지자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의 인쇄물량을 민간 인쇄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공생의 방법 모색·인쇄업 침식 철폐해야”**



패널 발표가 끝난 후에는 남원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도 발표의 기회가 부여됐다. 이에 남 이사장은 “시대정신이 상생에서 공생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인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협업의 관계를 통해 공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발간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단체나 용사촌 등에서 인쇄업을 침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철폐하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인쇄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쇄 산업 종합 센서스를 통해 인쇄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